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미래를 향해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

제33회 서울남연회 4월 21일~22일까지 광림교회에서 개최

제33회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가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라는 주제로 21일(목) ~ 22일(금) 오후 1시부터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되었다. 연회(年會)는 개체교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같은 인원의 평신도 대표, 준회원 교역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연례회의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서울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남연회는 현재 417개 교회와 20만 성도, 1,000여명의 교역자가 소속되어 있다.

첫째 날 개회예배는 김정석 감독의 사회로 최영준 장로(장로회연합회장)의 기도, 광림교회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설교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감독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인생(빌 2:12-16)'이라는 말씀으로 "사도바울은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권면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둘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며, 항상 경건하게 구별된 삶으로 가치있게 살아야 한다. 셋째 원망과 시비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를 돕고, 잘하는 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 성찬키트 안에 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실시되었다. 성찬예식 후 추도식이 이어졌으며 이번 추도식 대상은 지난해 소천한 교역자 12명으로, 김 감독이 대표하여 헌화하고 유족들에게 조의금을 전달하며 위로하였다.

추도식을 마친 후 2시 30분 김정석 감독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었으며 회원점명으로 총원 1,650명 중 1,338명이 참

석하였다고 보고 되었다.



김 감독은 '감독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인수의 감소를 비롯, 교회학교 교육의 약화 및 평신도지도자 육성의 곤란함 등이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을 만들고, 준회원의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협력과 상생의 자리를 만들

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사무처리 순서에서는 공천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 감리회연합기관 보고, 각 지방 감리사보고 및 교역자성품통과, 연회감사 선출, 30주년 근속교역자와 전도자에 대한 시상식, 사업분과위원회 모임 등을 처리하였다.

둘째 날은 은퇴교역자 14명에 대한 찬하예배, 연회소속기관 보고, 각 분과위원회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오후 3시부터는 이번 서울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26명에 대한 안수식과 정회원 허입식을 거행한 후 오후 6시에 폐회했다.

이번 연회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속에서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틀에 걸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득섭 기자

“공정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민수기 14장 7절)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란 단순히 상황을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그저 좋게만 보는 것이 긍정이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좋지 않은데 좋게 보고,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고, 훌륭하지 않은데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긍정의 믿음으로 큰 비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데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정탐꾼의 일원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명씩 선발하여 총 열두 명의 정탐꾼이 보내졌는데 그들은 40일간 약속의 땅에서 정보를 수집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왜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긍정을 선택하는 것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소한 문제든 중대한 문제든 선택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혹시 실패해도 실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만 실패한 게 아니야’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용기였으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무모하거나 대책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은 무모하거나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긍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흠을 잡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늘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4~10절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었드린지라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라 10.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둘째, 긍정의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8절)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들이 모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여서 긍정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상황이 좋아져서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증언한 것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좌절감이 모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반대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 어느 것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긍정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답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반면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며,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 중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난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 대전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매일 한 가지씩의 과제를 꼭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각자가 해방의 몸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를 상상하여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동료들은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한바탕씩 웃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서울남연회 <백서> 발간

33년 간의 역사와 정책, 미래 전망 담겨



지난 4월 21~22일에 진행된 제33회 서울남연회에서 매우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33년간의 서울남연회 역사와 정책, 통계자료 등을 정리한 서울남연회 '백서'를 발간하여 연회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있을 광역연회 통합을 앞두고, 서울남연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책들을 정리하여, 연회가 통합된 이후에도 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김정석 감독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장에는 대동화 목사(영등포교회)가 임명되었으며 총무에 박영준 장로(광림교회), 서기에 원동광 목사(수표교교회), 부서기에 김주송 목사(광림교회), 위원으로는 손석동 목사(시흥교회), 이상훈 목사(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권순정 목사(광림교회), 김영관 장로(관악중앙교회)가 임명되었다. 2021년 1월 12일 연회 본부에서 첫 모임을 시작한 이래 11번의 위원회 모임, 5번의 임원 소위원회 등,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서울남연회 정책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백서에는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서울남연회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 감독님들의 정책과 분과별 사업 등이 총 망라되어 있으며, 연회의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 분야별 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져 있다.

김정석 감독은 발간사에서 "백서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로운 예배에 대한 기억이며, 우리 사이의 수많은 만남의 기억이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며, "이러한 기억들이 모여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창조적인 통찰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과 디자인은 RMS퍼블리케이션즈에서 진행했으며, 백서는 각 지방회별로 배포되었다. 본부 역사정보자료실, 각 연회 및 신학대학 도서관, 평신도 단체에도 보내질 예정이다. 백서는 서울남연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는 도구가 되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

남선교회 부활절 택시 전도, 여선교회 바자회 준비와 지역 전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처럼, 광림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4월 17일(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2, 3, 4부 예배 전후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택시 전도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부활절과 교회 창립기념 주일을 '택시전도의 날'(Taxi day)로 정하고, 전교인들에게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자가용이나 교회 차량 대신 택시를 타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부탁했다. 광림교인이 탄 택시가 교회 정문입구와 사회봉사관 그리고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면 교회 어깨띠를 두른 남선교회 회원들이 생수, 물티슈, 초코파이, 계란, 광림의 강단 등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택시 전도데이> 행사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으면서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내릴 때에는 잔돈을 받지

않는 것을 에티켓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약 600개의 선물꾸러미를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모두 전달했으며 부활절 선물을 받은 택시 기사들은 광림교회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했다. 박기연 장로는 "서울 전역을 다니시는 택시 기사들은 소식을 전하고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통해 교회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고 광림교회가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뜻깊고 은혜로운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주신 모든 남선교회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 역시 4월 19일(화), 트리니티 성경공부 후 교회 주변을 돌며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쏟았다. 특히 이번에는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바자회' 소식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바자회는 긴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뭄 속 반가운 단비가 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 됐지만 아직 지역 상권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번 바자회에 동참한다면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은 교회 주변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바자회 쿠폰과 함께 지역 전도에 앞장섰다.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를 했다.



이화열 권사는 "바자회를 통해 교회 주변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교회 주변의 상인분들도 함께 웃고 행복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교회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다.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부활절예배

4월 17일 본당과 각 지성전에서 부활절예배를 드렸다.



여선교회총연합회 바자회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4월 26일(화) 개최한다.



사회사업위원회

4월 17일 월례회를 통해 어르신행사를 5월 8일(주일) 갖기로 했다.

담임목사 동정



- 4/11~16 고난주간
- 4/12 복음의전함 자문위원회
- 4/15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국제학술대회 공동대회장 추대식 성금요성찬예배
- 4/16 월간회의
- 4/17 부활주일 세례예식
- 4/19 교계 지도자 모임
- 4/20 삼남연회
- 4/21~22 서울남연회
- 4/24 총력전도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방송문화사역, 누구나 배워서 봉사할 수 있어요

카메라 촬영·음향·방송자막·아나운서 등 자원봉사자 모집



“방송선교사역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봉사가 유튜브와 홈페이지, CTS TV방송 채널을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되어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광림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새벽 4시 30분에 영종도에 있는 집에서 출발하여 광림교회까지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다닙니다. 광림방송실에서 30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문선기 권사는 말한다.

21세기 방송문화선교사역이 중심
방송문화선교위원회(위원장 오해일 장로)는 광림교회 예배 및 행사 관련 영상을 제작하

고 송출하며 방송문화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다. 특별히 본당 주일 3부 예배 실황은 CTS 기독교방송 채널을 통해 국내·외로 생방송되고 있다. 주일예배 뿐 아니라 기타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들, 또 40일 호렙산기도회가 인터넷과 유튜브, 지상파 방송을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생중계되므로 광림교회 본당에서는 물론 병상에 있는 환우나 지방에 거주하는 성도,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예배가 어려웠던 지난 2년간 광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전 세계에서 모든 예배가 가능하게 했다.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파했다. 복음을 실은 방송영상은 거기에 담긴 콘텐츠를 통해 하나의 기독교적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림교회 방송실은 최첨단 고가의 장비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배 중에는 총 10대의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으며, 4대의 카메라는 촬영기사가 필요하고, 6대는 무인카메라로 방송실에서 조작한다. 방송선교위원회에서는 카메라 촬영, 음향 담당, 자막처리, 미디어콘텐츠 제작, 아나운서와 작가 등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오해일 장로는 “코로나19 이후 복음전파를

위한 방송문화콘텐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카메라, 음향, 콘텐츠 제작 등)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오셔서 봉사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이 행복한 사역에 많은 광림의 성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유상균 PD(010-3387-7371)
오해일 장로(010-8749-0044)

이정순 기자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상담선교위원회

코로나 상황에도 매 주일 47명의 전문 봉사자들의 헌신 이어져



광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상담선교회(위원장 이재은 장로)는 코로나 시국에도 상담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많은 염려도 있었지만 작년 12월부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상담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47명의 전문직 봉사자들이 분과별 1:1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선교회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및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전문분야별로 2개 조를 편성해 매주

20여명이 봉사하고 있다. 광림교회 성도들 중 15개 분과별(교회 주보 참조) 47명의 전문직 봉사자들은 현재 변호사가 12명, 회계사 3명, 세무사 4명, 노무사 1명 등과 금융, 건축, 교육, 보험 등 전문 경력자들이다. 가장 많은 상담 분과는 법률, 세무, 회계 등으로 분과별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개인적 상담 등은 기밀이 보호되고 있다. 22년 간 가정신앙분과에서 봉사 후 이번에

은퇴한 최송희 권사는 “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서원했던 대로 믿음의 보배들인 사이닝스쿨에서 미술 심리치료를 아이들을 보듬고, 청장년부 예배 시간에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상담선교위원회에 전문직 봉사자들이 더 많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신앙분과에서 18년 간 결혼상담 봉사를 마친 마희자 권사는 “앞으로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믿음의 가정이 많이 이루어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기도한다”며 그동안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한다고 전했다.

상담선교위원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어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매주 상담 전 기도로 시작한다. 이재은 장로는 “문제가 있을 때 화합과 다툼의 초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문 지식이 활용될 수 있게 조인하고 있다.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도와 드리고 있다. 세무나 법무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법률, 회계, 세무 분야는 자격증이 있는 더 많은 성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도들을 돕는 헌신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상담선교위원회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까지 광림교회 본당 1층 목자상 후면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상담안내를 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Rebuild!” 강남 지역 청년들의 예배 다시 세워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



광림교회 청년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제자들의 주중예배인 목요 웨키나 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깊이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목요 웨키나 워십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청년부의 공식 기도모임이 된 목요 웨키나 워십은 18년이 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품고 한 해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부는 올해부터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을 준비합니다. ‘다시 세움(Rebuild)’라는

주제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주제말씀으로 삼아, 5월부터 시작할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은 청년부의 목요 웨키나 워십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청년부의 선교 전략인 예루살렘 · 유다 · 사마리아 땅끝 가운데 ‘유다’에 해당하는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은 매달 1회씩 강남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을 준비합니다.

5월 첫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은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청년부 웨키나 워십팀의 찬양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후 매달 한국을 대표하는 예배팀과 성령한국 청년대회 협력교회 목회자들을 모셔서 강남 지역을 대표

할 주중 예배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으로 오랜시간 함께 예배를 섬겨왔던 이민경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연합예배가 회복되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다시 뜨겁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건반을 섬기고 있는 장현석 형제는 “웨키나 워십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찾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 활기가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5월부터 시행되는 웨키나에서도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되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한국 웨키나 워십을 통해 강남 지역의 청년들이 주님과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속장을 맡고 있는 정세호 형제입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속회 공과와 매일의 말씀 묵상 노트에서 제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한 무리(Fan)가 아닌,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제자(Disciple)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질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첫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림교회 공동체는 온·오프라인 호렙산 새벽기도회, 전도키트 나눔과 같은 후방 교육선교 등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신 사명에 순종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무밭,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광림교회는 본질(예배와 기도, 선교 등)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이 제게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인 선교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매년 국내 교육선교 사역과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마 28:18-20)인 선교의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순간들 속에 주님이 저를 도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광림교회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호 속장 (청년부)

교회학교, 제1회 KLCS 풋살대회



“축구를 할 때 매번 이기기 위한 경기만을 했는데, 이번 풋살대회에서 처음 보는 동생들, 여자친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팀을 위해 뛰어서 의미 있었어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속상하기보다 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초등1부 이호준)

“풋살 경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경기에 임했어요. 마지막 남은 경기에서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습니다.”(초등2부 전상진)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제1회 KLCS(KwangLim Church School)풋살대회를 개최했다. 교회학교는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저하는 친구들을

위해 교회로 오는 문턱을 낮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풋살대회는 4월 10일, 17일, 24일 3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사회봉사관 3층에 마련된 풋살 경기장에서는 매 주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함성소리와 함께 50여 명의 선수와 60여 명의 학부모와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4월 10일 첫 경기에는 50여 명의 아이로 구성된 8팀이 풋살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는 전반전 10분, 휴식 10분, 후반전 10분의 형식으로 치러졌다. 총 4팀만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17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패자부활전 경기를 재개하여 다시 한번 친구들이 모여 경기에 임할 기회가 주어졌다.

24일 오늘 마지막 준결승,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4팀의 경기가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오늘 경기 후에는 간단한 이벤트와 함께 경기에 참여한 친구들을 위한 경품 추첨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국 임재철 목사는 풋살대회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이기기 위해 대회를 연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 풋살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 규칙을 잘 따르고 서로 배려하며 대회에 임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모인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립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번 KLSC 풋살대회를 통해 새 친구 16명이 교회로 나왔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루트를 찾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학교의 노력에 학부모님과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 박희윤 기자

전진제일교회

- 목회현장 -



김태웅 목사(1사단)

1사단 신병교육대 전진제일교회 사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중세례로 훈련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로 결단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과 저녁으로 두 번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예배는 위문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준비해온 다양한 행사를 결집한 예배를 통해 훈련병들의 낯선 환경과 군사훈련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주며 훈련병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과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여 차후에 자대배치 받은 곳에서도 거부감 없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부대 내 인간인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교회의 중요사역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민간인 성직자 1명만 교회출입이 가능해져 주일 오전예배만 겨우 드릴수 있게 되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 다시 부대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할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용사(요즘에는 장병들을 용사라고 호칭함)들의 영적상태입니다. 예배 및 다양한 목회적 돌봄이 제한되면서 용사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대지휘관의 허락을 받아 기독교용사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주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부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병소에서 용사들을 만나 잠깐의 교제를 나누고 광림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큐티집과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신우모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대창설일, 6.25, 국군의 날 등 군부대에서 기념해야 할 날에는 특별간식을 제공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대와 용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절기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부대 전체에 광림교회 이름으로 간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면서 1사단 신병교육대에 대한 교회의 지대한 관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현재 부대 내 선교활동이 제한된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어 군부대 내에서 선교활동이 제한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청년 용사들에게 전파되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림남교회

부활절에 드리는 찬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왔을 때 저희들의 신앙도 침체되어 가고 있었으며 성가대원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리스트와 중창단을 중심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며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찬양이 넘치도록 하시오며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성가대가 하나되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애통합과 간절함으로 5주간의 연습과 준비로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광림남교회 연합성가대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주일 저녁 찬양에 목말라 했던 성도들의 마음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놓아 불러보는 찬양에 성도들도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모든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해결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니 기쁘고 영광스러움으로 호산나, 호산나 두손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대연 권사(광림남교회)

야마가타교회

성전을 지킨 성도들과 감격의 첫 예배



일본 야마가타 광림교회 새 목회자로 부임한 도신우 목사는 부활주일인 4월 17일 첫 설교를 전했다. 올해 초 담당목사로 파송되었지만 도목사는 한일관계 악화와 코로나로 인해 종교비자 발급이 늦어져 일본 입국에 어려움이 많았다. 3월 극적인 비자 발급과 항공편이 확대되며 4월 13일 드디어 일본 땅을 밟게 되었다. 하지만 야마가타나 샌다이로 직접 갈 수 없어 도쿄로 입국 후 차량으로 6시간을 이동해 야마가타 광림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 입국의

모든 과정에는 현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두 분의 성도가 야마가타에서 도쿄까지 차량을 가지고 도목사를 마중 나왔고, 자가 격리를 마치고 부임 첫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일본 현지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동안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인도와 심방을 계속해 왔다.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던 목회자와 성도들은 직접 만나 첫 예배를 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또 이

날 예배에는 새로 등록된 성도들도 있어 그 기쁨은 갑절이었다.

코로나는 일본에도 많은 어려움을 끼쳐 교회 예배와 모임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마가타 광림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돌아가며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며 서로를 돌봤다. 도신우 목사는 "코로나 기간 묵묵히 성전을 지켜준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지역 선교와 특별히 한국 교포 및 교포 가정의 전도와 돌봄을 위한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 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야마가타 광림교회는 야마카타현 사가에서 작은 마을에서 광림교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던 가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8월 작은 컨테이너에서 7명이 모여 입당예배를 드렸고, 201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20년 본당의 지원으로 건물을 매입, 종교법인을 취득했다.

이선아 기자

10선교구

총력전도로 회복과 부흥을

광림교회는 4월 '총력전도의 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각 선교구가 한마음이 되어 내 주변의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여 기쁨으로 새가족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했다. 10선교구(담당 김우진 목사)는 3월 31일(목) 광림수도원에서 총력전도주일을 앞두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28·29·30교구 성도들이 모여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한 지구에 3명씩 새가족을 초청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김우진 목사는 "믿음은 몸으로 경험하는 신비

로움이고 일관성과 깨끗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박영준 권사(29교구장)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새신자 초청해 뮤지컬 관람

또한 4월 20일(수)에는 사회봉사관에서 연합다니엘기도회를 열고 '복음전도'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한 영혼을 위해 힘써 전도하기를 결단했다. 기도회 후 성도들은 두 명씩 짝을 이뤄 교회 주변 전도에 나섰다.

4월 30일(토)에는 새가족을 초청해 BBCH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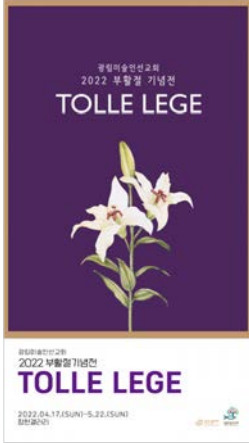
에서 뮤지컬 '1919 필라델피아'를 관람하며 새가족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소현수 기자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시각예술로

광림미술인선교회, 2022 부활절 기념전 <TOLLE LEGE>



부활절 기념전 출품작가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오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 영생의 살 길을 주셨다. 그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부활절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광림미술인선교회는 동양화, 서양화, 문인화, 섬유미술, 사진 등 다양한 미술의 달란트로 기독교미술 문화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다.

2009년 9월 조직되어 올해로 13년째로 접어든 광림미술인선교회(회장 이수자 권사)는 매년 상반기인 4월에 부활절기념전, 하반기인 11월에 추수감사절과 교회창립기념전으로 일년에 두 번의 정기전을 하고 있다. 광림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의 타이틀인 톨레 레게(TOLLE LEGE)의 의미는 'Take and read'로서 '성경을 취하여 읽으라'는 뜻이다. 성경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출석교인 작가들로 구성된 미술인선교회는 시각예술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2년 반이 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업하며 오히려 그 지경을 넓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전시를 하고 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부활의 의미를 담은 신앙고백적 작품들로서 총 18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참여작가는 김수희, 김남주, 김현우, 김혜령, 문지영, 민선홍, 박 정, 변영혜, 서희진, 아리엘, 안지아, 이수자, 이시원, 임재식, 임현규, 조명애, 최광대, 홍 람이다. 생명이 움트고 꽃들이 만개하는 부활의 봄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시각적 언어로 감상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

2022 부활절기념전은 4월 17일(주일)부터 5월 22일(주일)까지 웨슬러관 장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변영혜 기자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 BBCH홀 공연

조국의 독립과 건국 비전 알린 '제1차 한인자유대회' 기록과 기억의 역사들



1919년 4월 14일 ~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가 열렸다. 서재필,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 150여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나라 잃은 망명객들로 조국의 독립과 새 나라 건국 비전을 알리며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포했다. 또한 무력 전체주의 체제에서 독립해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했다.

'1919 필라델피아'(극본 이해경)는 제1차 한인자유대회 회의록과 유대인 랍비이며 기자 '조지 베네딕트'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연결되어 있다. 당시 불렀던 노래, 찬송가 등 11곡의 음악과 함께 기록과 기억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선조들의 나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는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4월 14일 ~ 5월 1일까지 열린다. 광림교회 성도는 50% 할인, 현장 구매 가능하다.

문화선교의 중심 광림아트센터
<광림아트센터>는 교회와 세상을 잇는 문화선교의 중심으로 뮤지컬 전용 BBCH홀과 클래식 전용 장천홀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광림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체험과 동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광림아트센터는 광림교회 목회 철학에 맞춘 기획으로 '루체 포레'를 활용한 작은 음악회,

직장인들을 위한 밀레니엄 광장 수시 음악회, 기독교 인문학 강좌, 북 콘서트, 주위 상권과 연계한 격주 '목요 음악회' 등을 준비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할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희 기자



▲ 제1차 한인자유대회 후 거리행진에 나선 한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차 세례예식> 4월 17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45명 세례, 25명 입교

- | | | | | | |
|----------|----------|----------|-----------|----------|----------|
| 1교구 민지영 | 2교구 한희수 | 5교구 김기숙 | 6교구 정새미 | 6교구 우지연 | 9교구 이창석 |
| 10교구 변진솔 | 11교구 오세빈 | 12교구 김혜정 | 12교구 신연재 | 15교구 장하량 | 15교구 장예량 |
| 21교구 안지호 | 21교구 김혜정 | 21교구 한정숙 | 22교구 김지환 | 22교구 김정용 | 22교구 이덕상 |
| 22교구 김연경 | 22교구 송하나 | 23교구 기소연 | 24교구 강현구 | 24교구 강나연 | 24교구 박정석 |
| 24교구 안혜균 | 24교구 김영미 | 25교구 선민혁 | 25교구 김주아 | 26교구 박지용 | 27교구 노미경 |
| 28교구 김민주 | 28교구 김서영 | 30교구 강민경 | 52교구 정민규 | 52교구 김선재 | 52교구 길희자 |
| 61교구 박사은 | 61교구 박규리 | 71교구 윤해영 | 88교구 신준교 | 88교구 서성훈 | 88교구 왕 별 |
| 88교구 김인영 | 89교구 김영오 | 89교구 문성빈 | 입교 -> | 2교구 이예은 | 3교구 남세현 |
| 5교구 박준호 | 6교구 김준환 | 6교구 감다원 | 6교구 박준영 | 18교구 윤현아 | 21교구 한세진 |
| 21교구 한유진 | 21교구 이도연 | 22교구 이희준 | 23교구 이다현 | 23교구 박수미 | 26교구 홍주영 |
| 27교구 추희성 | 88교구 이숙현 | 88교구 최원영 | 88교구 소재환 | 88교구 김정운 | 88교구 이가람 |
| 88교구 김달인 | 88교구 유중현 | 88교구 신인철 | 88교구 이사무엘 | 89교구 민동현 |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8



사탄의 유혹을 이긴 예수 마 4:8-11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예수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갔다. 요단강 서편의 광야는 황무(荒蕪)한 땅이었다. 나무도 없는 산이 절벽을 이루었고, 들판은 풀 한 포기 없이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거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수는 그곳에서 홀로 밤낮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때 사탄이 예수 앞에 나타나 말하였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여 배를 채우거라.”

이에 예수는 의연하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를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 벽이 하나로 이루어진 꼭대기로 이끌어 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주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할 것이니,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돌부리에도 채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예수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_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아리 셰퍼의 작품.

다시 사탄은 예수를 높은 산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보였다.



▲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예수는 사탄을 직시하며 단호히 명령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탄은 움찔하더니 물러갔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께 사중을 들었다.

▲ 그리스도의 유혹_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담고 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 유대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자 사탄이 예수에게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혹은 상단 왼쪽의 장면이고, 두 번째 유혹은 그림 중앙의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유혹은 상단 오른쪽의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기자 사탄은 수도복을 벗어 버리고 허공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 천사들이 다가와 식탁을 차리고 성찬을 준비한다. 그림 중앙의 제단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대사제는 시종이 봉헌하는 어린양의 피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옷을 입고 어린양의 피를 봉헌하는 시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 광림뉴스레터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